

# 장흥군, 유관기관새내기 함께하는 '장흥바로알기 투어'

### 25세~35세 직원 41명 대상 유대감 조성·역사·문화 소개 "우연이지만 새로운 친구 사귀는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라"

장흥군에서 지난 2일 지역에 새롭게 뿌리내린 유관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흥 바로알기 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장흥군 소재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25세~35세 직원 41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탐방은 장흥에 정착한 유관기관 직원 간 유대감을 조성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오전에는 군민회관에 모여 레크

리에이션으로 어색한 분위기를 털고 장흥 바로알기 투어를 시작했다. 첫 행선지인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에서는 피톤치드 편백숲 힐링 걷기와 숲속 버스킹 공연을 즐겼다. 귀족호도박물관에서 귀족 호도의 유래 및 종류 해설 강의를 들은 후에는, 장흥 다예원에서 청태전 시음 및 제작과정 체험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견학과 팀 미션을 통해 서막하

을 풀고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성 장흥군수는 "여러 지역에서 나고 자라 장흥에서 만난 것은 우연이지만, 오늘을 계기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군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극복'의 답은 청년이라는 전략아래 청바지 동아리, 청년행복UP 프로젝트, 인구청년 활력정책 공모전을 추진하는 등 청년정책을 확대해 가고 있다. 보다 체계적으로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는 인구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지방소멸지역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고 전략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흥=김도영기자



## '짜릿한 손맛' 진도군에서 오는 10일 전국민물낚시대회 개최

### 1위 상금 500만원...참가 선수 전원에게 친환경쌀(10kg) 등 푸짐한 특산물 전달



전라남도낚시협회장배 전국민물낚시대회가 '보배섬' 전남 진도군에서 개최된다. 진도군은 오는 10일 지역의 대표적인 '친환경 검정쌀 농산물 주산단지'인 지산면 앵무리수로 일원에서 전국 민물낚시대회를 개최한다

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남낚시협회가 주최하고 진도군낚시협회가 주관하며, 전남도와 진도군, 전라남도체육회, 진도군체육회에서 후원한다. 낚시 방법은 바닥, 내림이며 자리 배정은 추

첨으로 실시되고 대상 어종은 붕어 15cm 이상으로 시상은 길이(cm)를 원칙으로 한다. 단 떡붕어는 계속 시 5cm 패널티를 적용한다. 시상 내역은 1위 상금 500만원과 상장·트로피, 2위 200만원, 3위 50만원이며, 6~10위에게 고급 지역 특산품이 수여된다. 이외에도 자연보호상과 연장자상, 부부상, 원거리상을 비롯 다양한 행운상이 주어지며, 참가 선수 전원에게 친환경쌀(10kg)과 점심 도시락이 무료로 제공된다. 특히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도개와 진도울금 등 고급 지역특산품 등이 푸짐하게 준비됐으며, 상금의 10%는 진도군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기탁될 예정이다. 참가자는 20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참가 문의와 접수는 진도군 관내 낚시점으로 하면 된다. 진도군낚시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건전하고 안전한 낚시 문화가 정착되어 민물낚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 해남 흑석산 자연휴양림, 산림복지서비스 최우수 선정

해남군 흑석산자연휴양림이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2022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 전국 최고등급을 받아 최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140개 국공립자연휴양

림을 대상으로 기관운영의 합리성을 비롯해 시설관리,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고객만족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흑석산자연휴양림은 올해 노후화된 숲속의 집 14개동을 신축 완료해 휴양객들이 보

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자연휴양림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시설 기반을 확충했다. 지난 7월부터는 1회용품없는 자연휴양림 선포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관광의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다양한 주말 원데이 클래스, 5월의 가족의 달 행사, 숲속 음악회 개최, 치유 인문학강좌 등 숲속에서 힐링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완도군, 보다 나은 생활환경 조성 '군민 삶의 질 높인다'

완도군은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12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기후변화로 잦아진 재난·재해 등에 적극 대응한다. 최근 가뭄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도서 지역의 식수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화-보길 광역 상수도 해저 관로 설치 사업과 금일, 군외고급 지역을 대상으로 식수원 개발 사업, 보길 지하수 저류지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한다. 태풍과 집중 호우로 상습 침수 피해를 입는 군내리에 총 251억 원을 투입해 빗물받이, 하수 관로 및 펌프장을 설치하는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5년도에 사업이 완공되면 완도읍은 상습 침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로 기대된다. 각종 생활 밀착형 기반 시설 확충 및 군민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완도읍 9개 마을, 4천여 세대에 LPG를 공급 중이며, 아직 LPG 배관망이 설치되지 않은 고금, 신지, 군외, 약산 지역에 총 139억 원을 투입해 배관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403억 원을 들여 공공 하수도가 운영되지 않는 7개 읍면, 10개 마을의 하수도를 정비한다. 금일 방면만 운행 중이던 여객선 야간 운행을 노화, 소안 방면으로 확대한다. 항로 내 양식 시설물을 철거하고 등(燈) 부표 설치로 시인성을 확보 한 후 내년 상반기 중 매일 1회 야간 운항을 실시한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강진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강진군은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과 청내 영상 동보 시스템을 활용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유기용) 박가영 사례팀장을 강사로 초청해, 사례를 통한 아동학대의 심각성 및 신고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직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강진=김영일기자

강진군은 민·관 협동으로 범 군민 아동학대 캠페인을 실시하고,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전 세계적인 'End violence' 캠페인에 강진원 군수가 동참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군민의 관심을 호소해 왔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 원가정 보호서비스, 가족 재결합 서비스 등 전문적인 아동보호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강진경찰서, 강진교육지원청,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시로 정보연계협의체를 열어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학대 판단 및 보호아동의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 등 효율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